

## 부산 지역의 지역 사회 획득성 급성 신우신염 원인균의 항생제 감수성과 경험적 치료제 선택에 대한 고찰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산백병원 내과

구호석 · 이원동 · 문치숙 · 강선우 · 김양욱 · 김영훈

**목적** : 지역 사회 획득성 급성 신우신염은 주로 *E. coli*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부분 원인균이 동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험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항생제 남용으로 내성균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만성 질환자 및 면역 저하 환자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원인균은 다양해지고 항생제 감수성 양상 역시 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보고된 요로 감염에 대한 연구 조사를 보면 질환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병원감염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항생제 평가가 어려우며 임상 경과에 대한 고찰이 많지 않으므로 적절한 초기 경험적 항생제를 제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방법** : 15세 이상으로 2003년 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부산백병원 신우신염으로 입원한 160명의 진료기록을 조회하였다.

**결과** : 대상 환자들의 연령은 51.6세이었으며 160명 중 남녀 비는 1:7.8이었다. 대상 환자들의 평균 입원기간은 9.3일이었으며, 대부분이 ciprofloxacin 단독 혹은 복합 치료를 받았다. 합병증은 신농양환자 1명 패혈증 1명에서 발생하였다. 기저질환으로는 당뇨병이 16%로 가장 많았었으며, 동정된 균주는 *E. coli*가 56예 (37%)로 가장 많았다. *E. coli*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은 ampicillin 43.8%, TMP/SMX 63.1%, cefazolin 82.4%, ciprofloxacin 82.4%, ceftriaxone 94.7%, gentamicin 71.9%, imipenem 96.4%, piperacillin/tazobactam 94.7%이었다.

**결론** : *E. coli*는 지역사회 획득성 급성 신우신염의 가장 흔한 원인 균이었으며, cefazolin, ciprofloxacin, ceftriaxone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감수성을 보였으며, 급성 신우신염의 경험적 치료 항생제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